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총력전

아파트 세대별 종량제 확대

경진대회·인센티브제 시행

시민 홍보 강화 동참 호소

광주시가 음식물쓰레기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왔지만 최근 발생량이 늘어나고, 민간처리시설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과 관련해 복구와 담양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만 제거해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30% 가량 줄일 수 있는 만큼 발생량 절감을 우선 해결방안으로 보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감량실적에 따른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대시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평균 30% 이상 배출량 절감 효과가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가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RFID)는 배출기에 결제 카드를 대고 쓰레기를 버리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해 각 세대별로 버린만큼 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월요일과 화요일 민간처리시설 과다 반입에 따른 각 자치구의 민간처리비용 부담과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따른

다 군과의 갈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일요일에 일부 운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지역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2014년 기준 490t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2곳에서 처리 용량을 초과해 처리해왔다. 그러나 설비의 잦은 고장, 수명단축, 동력비 증가, 악취 등 문제가 발생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 용량 만큼만 정량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 외 추가 발생량에

대해서는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복구에서 추가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담양군에 위치한 민간처리시설에 반입되면서 최근 복구와 담양군 간 갈등이 빚어졌다. 현재 광주시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공공처리 비율은 환경부 권고(60%) 및 타 시·도에 비해 높은 8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주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처리 비용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참여와 감량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온실가스 NO! 광주기후·환경네트워크(재)국제기후환경센터는 지난 18일 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성과보고회와 저탄소 녹색아파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운동 동참을 축구하고 있다.

광주시 교통안전지수

6년 연속 전국 1위

광주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4년 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3주 이상 중상피해사고를 대상으로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대비 사망자 수 및 중사고 건수 등 8개 기초변수값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사고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을 반영해 합산한 수치로, 광주시는 전국 평균 75.2점을 크게 웃도는 82.7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 비해 1.1점 상승했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시민단체, 교통유관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운동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등하교 보호지도 등 교통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추억을 팝니다 광주시 동구와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동구 장동사거리에서 여반플리 '소통의 오두막'에서 '트렁크 좀바 추억 나눔 마켓'을 개최했다. 이날 나눔 마켓에는 공방 60여곳이 참여해 장난감과 공예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으며 7080 코스프레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됐다. <광주시 동구 제공>

디케이산업·늘찬 '공정위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2개 기업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평동공단 내 디케이산업(주)과 북구에 위치한 (주)늘찬이 최근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기업으로 뽑혔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

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인증하는 제도다. 디케이산업(주)는 지난 1993년 설립 후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프레스, 금형, 전자제품용 부품 관련 B2B 분야에서 성장해왔다. 2012년 자체 브랜드(디에페)로 제품기를 생산하면서 B2C 시장에 진출한 후

체계적인 고객만족 경영 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CCM을 도입했다. (주)늘찬은 1998년 돈가스 생산 전문업체인 (주)두리원을 장입해 17년간 돈가스 단일품목 생산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온 기업이다. 급변하는 소비 환경과 대내외적인 고객 니즈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CM을 도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들 기업에는 소비자피해 신고 사건의 자율 처리 권한, 소비자관련법 위반 시 공표 명령 수준 경감, 우수 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올해 7월1일 현재 전국에 137개의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기업이 있지만 광주지역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 한곳도 없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는 CCM을 인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전 조사하고 CCM 홍보 등 6개월여 노력으로 이번에 2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안전한 골목 만들기' 장관 표창

광주시가 최근 여성가족부 주관 2015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및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실적 평가에서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는 올 한해 각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과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과가 우수한 6개 기관을 선정, 사례발표와 우수기관을 시상했다. 지역안전프로그램은 아동·여성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 내 인적·물적자원 등을 활용, 각 지역별 특성화 안전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수행기관인 광주여성민우회와

함께 '아동·여성 안전 우리골목 프로젝트'를 안전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 화정 3동 4~5층 일대 골목을 벽화와 설치미술 등으로 정비했다. 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벽화그리기, 유해환경 제거(아들고 방치된 공간 재조명), 시설 설치(가로등, 야간 등, 안전벨 등) 등 동네를 쾌적하고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고, 인식 개선과 공동체 형성이 안전한 마을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을 알려 '안전' 개념을 확장시켰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등 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발 맞춰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골목반사회'를 제안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재난 대비 시민행동요령' 발간

광주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정보, 행동요령 등을 담은 '재난 대비 시민행동요령'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안전 ▲교통안전 ▲공공장소 안전 ▲여가안전 ▲화재안전 ▲자연재난안전 ▲산업안전 등 일상생활에서 자

주 발생하는 7가지 안전 유형별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시는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 교육청 등에 배부하고, 홈페이지(www.gwangju.go.kr) 재난안전-시민행동요령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복구,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 풍성

광주시 복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각종 나눔행사를 펼친다. 복구청 20~30대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모임인 청년간부회의는 오는 24일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 빨래, 배식, 주변 산책, 말벗 되어주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시설 입소자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갖는다. 특히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동전 모으기 운동'

모금액과 매주 화·목요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운영한 '화목한 카페' 수익금 등 200여만원을 시설에 기탁할 예정이다. 청년간부회의는 또 이날 오후 '물레산타'가 되어 그룹홈 아동보호시설 3개소를 방문한다. 복구기독교교단협의회는 22일 오후 1시30분 복구청 3층 회의실에서 '사랑의 쌀 1004포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백미 1004포(1포 20kg) 전달식과 함께 나눔 음악회도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	--	---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